적재 불량으로 단속된 25t 화물차. 연합뉴스6m 길이의 컨테이너 2개 등을 무리하게 실은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린 25t 화물차가 경찰에 적발됐다.16일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50분께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 양양나들목 부근에서 적재함을 훌쩍 넘어선 대형 컨테이너를 싣고 운행 중인 25t 화물차가 발견됐다.경찰은 발견 즉시 해당 차량을 졸음쉼터로 유도했고, 운전자 A(49) 씨가 적재함을 개방한 상태로 길이 6ｍ짜리 컨테이너 2개를 무리하게 싣고 운행한 것을 확인했다.  
  
  
  
당시 A 씨는 강풍으로 인해 적재함 고정장치가 느슨해져 뒤편 컨테이너가 적재함 밖으로 떨어질 듯 위험한 상태로 운행했다.또 아무런 조치 없이 컨테이너 사이에 버팀목과 철제공구 등을 싣기도 했다.경찰은 A 씨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경우,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며 중상자 이상 사고가 났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